

‘무등산 시선’으로 바라본 광주 자연과 도심의 풍광

27일까지 동구 은암미술관에서
임채욱 작가 기획초대전 개최
사진·영상·설치 등 23점 선배
“지역성 초월한 가치 조명”

무등산은 광주·전남 지역의 진산(鎭山)이자 호남정맥의 중심 산줄기로, ‘비할 데 없이 높고 큰 산’ 또는 ‘등굽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산’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광주의 역사를 지켜보며 함께 아름다움을 품었던 어머니 산인 무등산의 시선으로 구현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 동구 은암미술관은 임채욱 작가 기획초대전 ‘무등산’을 오는 2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무등산의 시선으로 바라본 광주와 그 주변의 풍경, 서사를 담은 사진, 입체 작품, 설치 영상 등 총 23점을 선보인다.

임 작가는 1970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났다. 2008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한 그는 지난해 3월 서울 은평구의 삼각산금암

미술관에서 ‘북한산길’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오랜 기간 북한산에 관해 탐구해 왔다.

이번 전시는 ‘북한산길’ 이후 그가 지난 1년 6개월간 작업한 광주의 ‘무등산’을 선보이는 자리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역사를 지켜본 북한산과 광주와 남도 지역을 지켜본 무등산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4·19와 5·18이라는 민주화 역사를 상징했다. 작가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무등산 작업을 시작했다.

전시장은 한 주체로서의 무등산이 바라본 산과 그 주변의 풍경을 담은 작품들이 자리한다. 그가 표현하고자 한 무등산 작업의 시선은 작가가 아닌 무등산 자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중국 북송대의 광희(郭熙)가 정립한 동양 고유의 원근법인 인간중심의 고원법, 심원법, 평원법이 아닌, 무등산이 주체가 된 시선으로 광주의 서사를 사진 중심으로 선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전시는 △무등산(광주의 역사를 지켜본 산) △무등산 의재길(차와 예술의 길) △무등산 오월길(5·18 민주화 길) △무등산 물들길(남도 정원의 길) 등 4가지



임채욱 작가가 사진을 구겨서 만든 입체 작품들도 은암미술관 1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제로 나눠 구성됐다.

전시의 시선은 무등산 정상부터 차츰 산 아래로 내려간다. 이는 광주 시내를 거쳐 담양과 화순, 강진과 해남까지 이어진다. 한지에 프린팅 한 사진에서부터 손으로 사진을 구겨서 만든 입체 작품, 설치 영상까지 다채롭게 공간을 꾸민다. 특히 ‘무등산 의재길’에서는 광주 의재길 입구에 위치한 ‘춘설차’의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차를 선보이는 ‘티에디트’와

협업해 전시한다.

작가의 작품 곳곳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담겨 있다. 입체 작품의 경우 인화가 잘 못된 사진을 버리려고 구겼는데, 구겨진 사진이 마치 바위처럼 입체적으로 보였는데 계기가 됐다.

인터랙티브 아트 작품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전일빌딩245가 화면에 담긴 이 작품은 관객이 손뼉을 치거나 소음을 낼 때마다 라이트가 곳곳에서 번뜩인다. 이는

지난 1980년 민주항쟁 현장인 이 건물에 언제든 광주시민의 함성에 반응한다는 메시지를 담아낸 것이다. 이 밖에도 무등산 일대 도로를 가로지르는 드라이브를 영상 작품으로 구현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고 운상원 열사를 기리기 위해 마련한 ‘꽃 피우는 운상원’ 작품도 설치돼 있다. 이처럼 이번 ‘무등산’ 전시는 색다른 연출로 사진의 넓혀진 외연을 관람객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임 작가는 “10여년간 북한산을 주제로 작업해 왔다. 지난해 선보인 ‘북한산길’ 전시가 북한산의 역사적 고찰이었던 건지 이번 무등산 작업도 자연스럽게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어졌다”며 “무등산이 주체가 된 관점으로 바라본 광주를 통해, 지역성을 초월한 무등산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확장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암미술관은 이번 전시가 관람객들에게 문화 향유를 제공하고 작가들에게는 참신한 바람을 일으켜 미술 발전에 기여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글·사진=박찬기 기자 chan.park@jnilbo.com



2025 GAC기획공연 11시음악산책 ‘명작시리즈1-오만과 편견’이 오는 29일 오전 11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이번 무대에서 음악을 들려줄 알테무지크서울.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문학·미술·음악 아우른 인문학 콘서트 열린다

‘명작시리즈1-오만과 편견’ 첫선
29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서

문학, 미술, 음악을 아우르는 ‘명작 시리즈’ 첫 번째 공연이 열린다.

1일 광주예술의전당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전 11시 2025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명작시리즈1-오만과 편견’을 소극장 무대에서 선보인다. 올해 주제는 ‘명작(名作)’으로 문학, 미술, 음악을 결합한 인문학 콘서트를 연 8회 공연할 예정이다.

29일 펼쳐질 첫 공연은 제인 오스틴의 대표작 ‘오만과 편견’을 중심으로 19세기 초 영국 사회의 결혼, 계급, 로맨스를 탐구한다. 제인 오스틴의 섬세한 필치로 그려낸 영국 사회의 풍자와 로맨스를, 풍부한 음악과 함께 다채롭게 해석해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소설 속 시대로 안내할 음악은 르네상스부터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아우르는 ‘알테무지크서울’이 연주한다. 헨델 ‘오보에 협주곡 3번’, 존 다울랜드 ‘흘러라 나의 눈물이어’, 프랑수아 쿠프랭 ‘왕실의

합주곡집 중 제2번’, 비발디 ‘차이코나’ 등 총 6곡의 고음악을 선사한다.

카운터테너 이희상, 바로크 바이올린 김은식, 바로크 오보에 신용천, 바로크 바이올린 김상하, 바로크 비올라 장희진, 바로크 첼로&비올라 다 감바 강효정, 첼발로 아렌트 흐로스펠트, 테오르보 윤현종이 깊이 있는 고음악의 세계로 관객을 안내한다.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관람료 전석 2만원, 공연시간 80분,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박찬기 기자

“오월정신으로 노래할 음악인들 모이세요”

오월창작가요제 경연곡 모집
14~17일 접수... 총 14팀 선발
총 2400만원 창작지원금 지급

오월정신의 가치를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는 제15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가 전국의 음악인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1일 (사)오월음악에 따르면 오월창작가요제는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노래하는 음악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2010년 5·18광주민주화쟁 30주년을 기념해 시작돼 광주를 전국에 알리는 대표적인 음악 행사로 자리잡았다.

올해 오월창작가요제의 창작 주제는 △5·18민주화쟁을 기억하고 오월정신을 담은 노래 △시대상·반전·평화·기후위기 등 시대정신이 담긴 노래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 정신을 담은 노래 △진솔하고 개성있는 삶과 사랑의 노래 등이다. 음악 장르에 제한은 없으며 음원으로 정식 발표한 적 없고 저작권 등록이 안된 순수 창작곡만 접수가 가능하다.

제15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참가곡을 접수



하며 예심에서 음원 및 영상, 서류심사를 거쳐 총 14팀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14팀은 다음달 24일 현장 경연으로 진행되는 본선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본선에 입상한 14개 팀에게는 대상 1000만원(1팀), 금상 500만원(1팀), 은상 300만원(1팀), 동상 200만원(1팀), 장려상 100만원(4팀) 등 총 2400만원의 창작지원금이 지급된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카페(www.maymusicfest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기 기자

광주서 펼쳐지는 버스커들의 꿈의 무대 참가자 공모

‘제4회 광주 버스킹월드컵’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총 상금 4000만원 등 혜택

전 세계 버스커들의 꿈의 무대로 불리는 행사가 참가자를 기다린다. 광주시와 광주 동구가 주최하고 동구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제4회 광주 버스킹월드컵’의 참가 뮤지션 모집이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1일 동구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광주 버스킹월드컵’은 전 세계 버스킹 뮤지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오직 라이브 공연으로 실력을 겨루는 무대로 지난해 총 58개

국 781팀(국내 534팀, 국외 247팀), 2143명의 뮤지션이 경연에 참가했다.

경연 참가 뮤지션에게는 국적과 장르에 제한 없이 글로벌 무대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며 총상금 4000만원과 음원 유통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가 자격은 19세 이상의 뮤지션으로 광주 버스킹월드컵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는 창작곡 또는 기성곡을 포함한 5분 이내의 라이브 공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후 해당 링크를 신청 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예선을 통과한 32개 팀은 세계적인 음악 전문가들 앞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특히 올해는 해외 음악 페스티벌 및 공연 프로그래머, 디렉터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우수한 참가자들에게 글로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선 진출팀에게는 △음원 유통 지원 △항공료 및 교통비 지원 △숙박 지원 △버스킹 프리존 공연 기회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입택 동구정장(동구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광주 버스킹월드컵’은 세계 곳곳에서 온 다양한 뮤지션들이 음악으로 교류하는 축제”라며 “이번 참가자 모집을 통해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광주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기 기자

